

{ 2018년 7월 등재 결정 }



World Cultural Heritage

세계문화유산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산

Hidden Christian Sites in the Nagasaki Region

- 나가사키현
- 나가사키시
- 사세보시
- 히라도시
- 고토시
- 미나미시마바라시
- 오지카쵸
- 신카미고토쵸
- 구마모토현
- 아마쿠사시

일본 특유의 종교적 전통

한국어

'기리시탄'은 일본에서 금교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 가톨릭 신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역사적 용어입니다.

성당 견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성당 견학 매너

성당은 '기도하는 장소'이므로 견학 매너를 지켜주시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게 관람해 주십시오.



성당을 견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행사에 따라 견학할 수 없는 경우,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견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각 접수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 오우라 천주당 견학은 사전에 연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산 인포메이션 센터가 접수창구인 성당

구 고린 성당, 시쓰 성당, 오노 성당, 구로시마 천주당, 다비라 천주당, 에가미 천주당, 가시라가시마 천주당

(우)850-0862 長崎縣長崎市出島町1-1-205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데지마마치 1-1-205(데지마 와프 2층)

TEL. +81-95-823-7650 ●접수시간| 9:30-17:30

<http://kyoukaigun.jp/kr/>

오지카 아일랜드 투어리즘이 접수창구인 성당

구 노쿠비 성당

(우)857-4701 長崎県北松浦郡小値賀町笛吹郷2791-13

나가사키현 기타마쓰우라군 오지카쵸 후에후키고 2791-13(오지카항 터미널 내)

TEL. +81-959-56-2646 ●접수시간| 9:00-18:00

<http://ojikajima.jp>(일본어 사이트)

'큐슈 산코 투어리즘 ㈱ 여행센터'가 접수창구인 성당

사키쓰 성당

(우) 860-0806 熊本市中央区花畑町4-3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추오구 하나바타쵸 4-3(타이오세이메이 쿠마모토 빌딩 9층)

TEL. +81-96-300-5535 ●접수시간| 10:00-18:00

<https://www.kyusanko.co.jp/ryoko/pickup/sakitsu-church/>

제작/나가사키현 세계유산과

이메일주소| s38020@pref.nagasaki.lg.jp

URL| http://www.pref.nagasaki.jp/s_isan(영어 사이트)

2019년 8월 발행

환영 협력/ ㉠ 히구라시 유이치, ㉡ 이케다 쓰토무

<http://kirishitan.jp/k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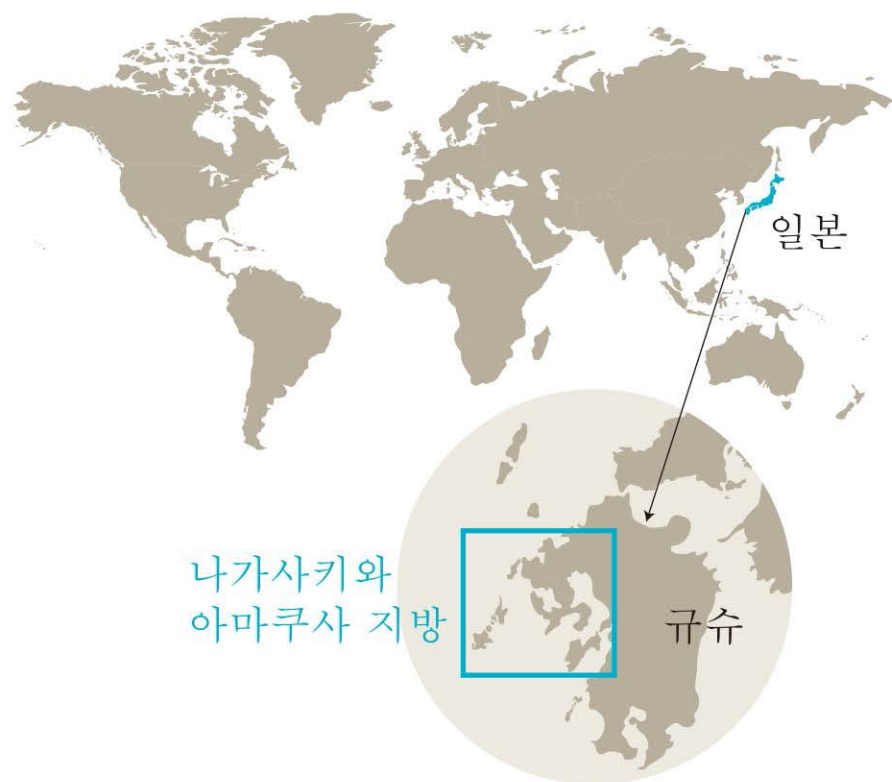
Hidden Christian Sites in the Nagasaki Region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8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 소개

대항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세계의 그리스도교 선교지의 동쪽 끝에 있는 일본. 그 일본 열도의 남서부, 규슈 서쪽 끝에 위치한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은 고대로부터 일본과 대륙의 가교 역할을 해 왔으며, 16세기 후반부터는 가장 활발하게 그리스도교 선교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그 결과 세례를 받은 기리시탄들은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선교사의 지도를 받게 되었고, 신자들 사이에서는 견고한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교 금지로 인한 선교사의 부재 속에서도 기리시탄은 '잠복'하여, 신도나 불교 등 일본의 전통 종교나 일반 사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은밀하게 신앙을 지켜 나가는 독특한 전통을 만들었다. 이들의 전통은 19세기 후반의 금교령 폐지 후, 16세기에 전파된 그리스도교파, 가톨릭으로 복귀한 신자들에 의해 성당이 건설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지금도 이 지방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예외적으로 많은 가톨릭 신자와 성당이 존재하고 있다.

2세기 이상에 걸친 그리스도교 금교 정책 아래에서 은밀하게 신앙을 전파한 사람들의 역사를 말해주는, 유례없는 증거가 바로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산'이다.



소토메의 저녁 풍경



선교사의 부재 속에서 형성된 일본 특유의 종교적 전통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산’은 그리스도교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일본 전통 종교나 일반 사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을 지켜 온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 유지와 관련된 전통을 증명하는 유산군이다. 이 유산군은 잠복 기리시탄 전통의 시작에서 형성과 유지, 확대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신앙 국면의 도래에 따라 전통이 변용되어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잠복 기리시탄의 전통과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필수불가결한 12가지 구성 자산으로 되어 있다. 이 유산군은 대항해 시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선교지의 동쪽 끝에 있는 일본 열도 중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활동이 이루어진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반도와 섬에 흩어져 있다.

‘잠복 기리시탄’이란?

그리스도교가 일본에 전래된 후, 금교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당시 일본에서는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된 ‘기리시탄’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교가 금지되었던 17~19세기 일본에서 사회적으로는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은밀하게 그리스도교에서 유래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 기리시탄을 학술적으로 ‘잠복 기리시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독자적인 대상을 숭상하는 등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이주 지역을 선택하는 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울러 ‘잠복 기리시탄의 전통’이라 부른다.

또한 그리스도교 금교령이 폐지된 19세기 후반 이후에도 계속해서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 형태를 유지한 사람들을 ‘가쿠레 기리시탄’이라 부른다.



12가지 구성 자산

<p>하라 성터</p> <p>기리시탄이 '잠복'하여 독자적인 신앙 유지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 계기,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의 주 전경터.</p> <p>1</p>	<p>히라도의 성지와 취락 (가스가 취락과 야스만다케 산)</p> <p>그리스도교가 전해지기 전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산이나 기리시탄이 순교한 섬을 숭상하면서 신앙을 실천한 취락.</p> <p>2</p>	<p>아마쿠사의 사키쓰 취락</p> <p>생활 속 주변 물건을 신앙의 도구로써 대용하여 신앙을 실천한 취락.</p> <p>4</p>	<p>소토메의 시쓰 취락</p> <p>그리스도교에서 유래된 성화상을 몰래 숭상함으로써 신앙을 실천한 취락.</p> <p>5</p>	<p>소토메의 오노 취락</p> <p>신도에 은밀하게 모셔둔 자신의 신앙의 대상을 숭상함으로써 신앙을 실천한 취락.</p> <p>6</p>	<p>구로시마 섬의 취락</p> <p>히라도 번의 목장터를 개척한 지역으로 개척이주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한 취락.</p> <p>7</p>	<p>노자키지마 섬의 취락터</p> <p>신도의 성지였던 섬으로 개척이주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한 취락.</p> <p>8</p>	<p>가시라가시마 섬의 취락</p> <p>환자들의 요양지로 사용되었던 섬에 개척이주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한 취락.</p> <p>9</p>	<p>히사카지마 섬의 취락</p> <p>고토 번의 정책에 따라 섬의 미개발지에 개척이주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한 취락.</p> <p>10</p>	<p>나루시마 섬의 에가미 취락 (에가미 천주당과 그 주변)</p> <p>금교기 이후에 의해 취락이 형성되고, 금교령 폐지 후에 '잠복'이 끝났음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성당.</p> <p>11</p>	<p>오우라 천주당</p> <p>선교사와의 접촉을 통해 '잠복'이 끝나는 계기가 된 '신도 발견' 장소.</p> <p>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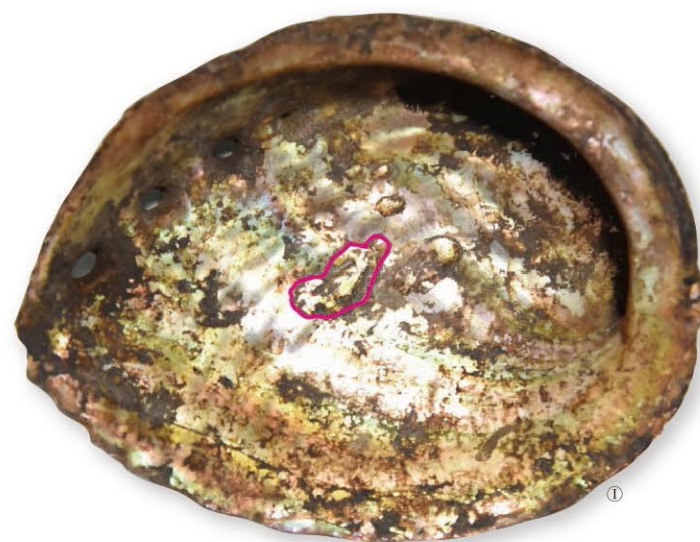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 관련
하라 성터 혼마루(구성 자산 ❶)
'시마바라 전투 그림 병풍',
아키즈키 향토관 소장)

세계유산 으로서의 가치

탁월한 보편적 가치

I | 선교사의 부재와 기리시탄 '잠복'의 계기

1549년 예수회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에 의해 전해진 일본의 그리스도교는 그 후 일본에 온 선교사들의 선교활동과 남만 무역의 이익을 위해 개종한 기리시탄 다이묘(영주)의 옹호로 일본 전국으로 퍼졌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선교사 추방령에 이어 에도 막부의 금교령에 따라 모든 성당은 파괴되었고 선교사는 국외로 추방되었다. 1637년 금교 정책이 강화되던 중, 폭정을 계기로 기리시탄들이 들고 일어나 '하라 성터'에서 농성을 벌인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에 충격을 받은 막부는 선교사의 잠입 가능성이 있는 포르투갈 선박을 추방하고 쇄국 체제를 확립했다. 1644년에는 마지막 선교사가 순교. 남은 기리시탄은 민중 차원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잠복하여 신앙을 유지했으나, 17세기 후반에 일어난 대규모 기리시탄 적발 사건에 의해 공동체는 차례차례 붕괴되었고, 신자들의 대부분이 신앙을 배교하거나 순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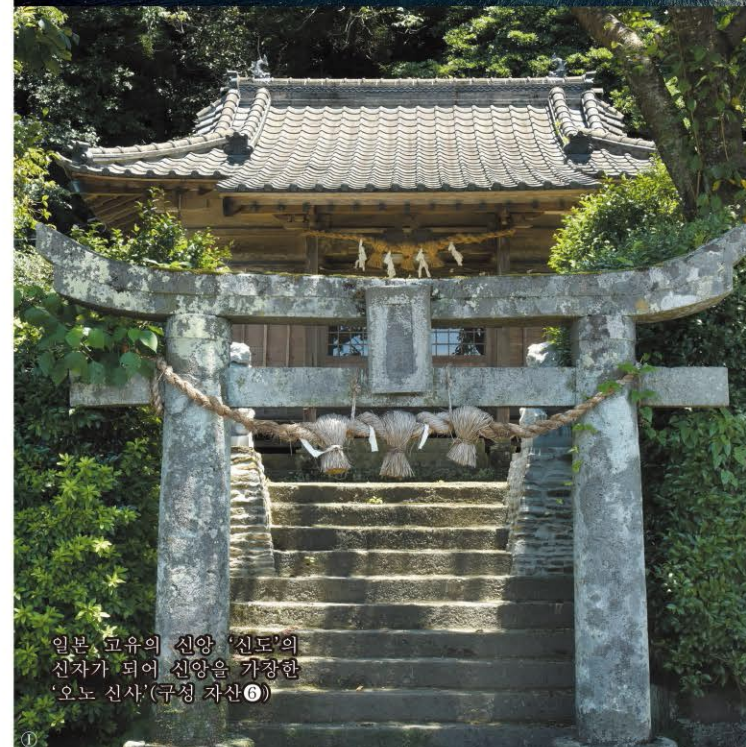


신앙의 도구로 대용된 전복조개 껍질
(개인 소장, 구성 자산 ❶)
* 붉은 테두리 부분을 성모 마리아로 여겼다

II |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일본 각지의 잠복 기리시탄은 그 맥이 끊겨 갔지만, 그리스도교 전래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에서는 18세기 이후에도 신앙공동체가 유지되었고, 점차 일본의 독자적인 신앙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신앙을 숨기면서 유지하기 위해 산이나 섬 등을 성지와 순교지로서 숭상한 '히라도의 성지와 취락', 생활과 생업에 뿌리내린 친숙한 사물들을 신앙의 도구로 대용한 '아마쿠사의 사키쓰 취락', 성화상을 은밀하게 모시며 교리서와 교회력을 믿음의 기초로 삼은 '소토메의 시쓰 취락', 신사에 자신들의 신앙 대상을 중첩시킨 '소토메의 오노 취락' 등 다양한 신앙 형태가 각각의 취락에서 형성되었다.

은밀하게 전승한 '무겐자이노푸라캣토 (원죄 없는 잉태를 본뜬 대형 청동메달)'(구성 자산 ❷, 나가사키시 드로신부 기념관 소장)



가사가 취락과 야스만다케 산,
나카에노시마 섬(구성 자산 ❷,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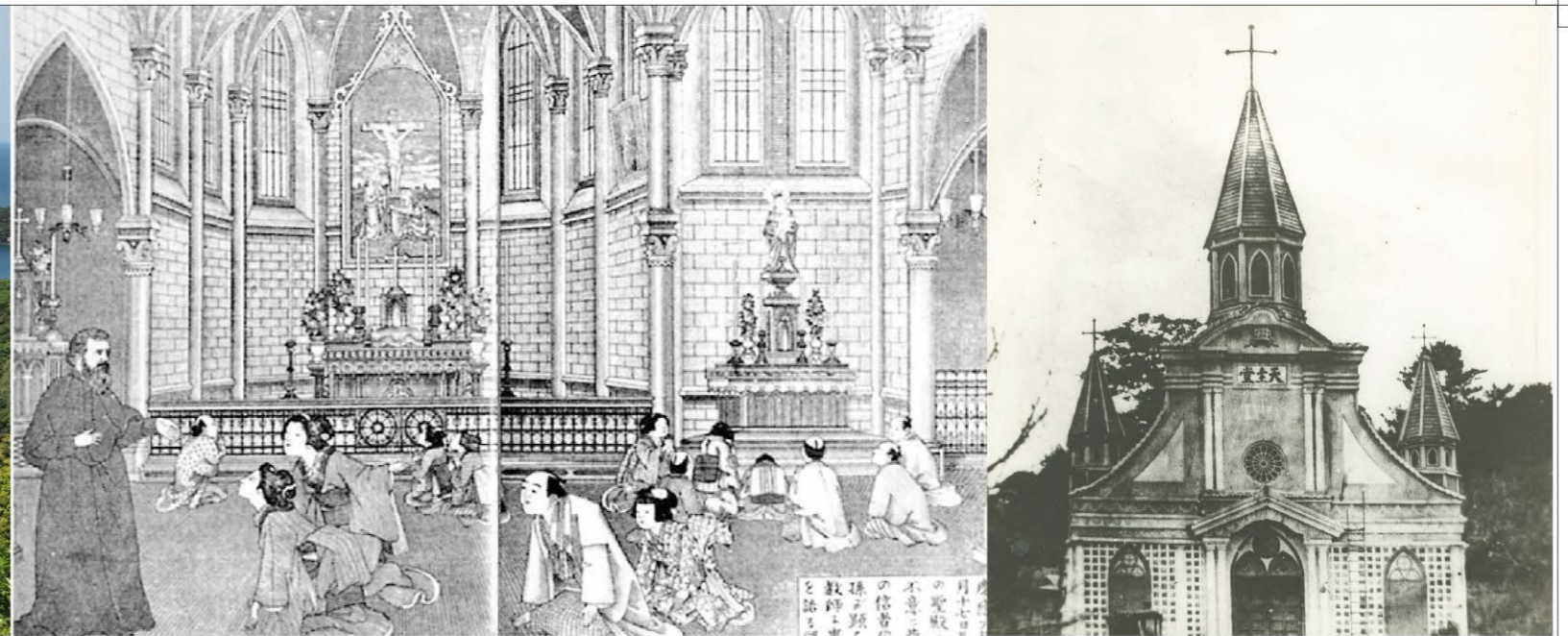
일본, 교유의 신앙 '신도'의
신자가 되어 신앙을 가장한
'오노 신사'(구성 자산 ❸)



오키노코지마 신사(구성 자산⑧)



시라하마 취락(구성 자산⑨)



‘신도 발견’을 그린 삽화
(에메 빌리용 저 『일본성인 선혈유서』)

창건 당시의 오우라 천주당(구성 자산⑫)
※(주)나가사키 문헌사 제공

III | 잠복 기리시탄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노력

18세기 말이 되면서 소토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해 고토 열도 등으로의 개척 이주가 실시되었다. 개척 이주자 중에는 잠복 기리시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이 이주할 때는 번의 재개발지(구로시마 섬의 취락) 및 미개발지(히사카지마 섬의 취락), 신도(일본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신앙)의 성지(노자키지마 섬의 취락터), 환자 요양지(가시라가시마 섬의 취락) 등 기존의 사회 및 종교와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이주지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독자적인 신앙 대상이나, 이주하기 위해 선택한 지역에 따라 형성된 독자적인 신앙의 형태로 인해 2세기에 걸쳐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이 전승되었다.



낙도 등으로의 이주

오비라키 취락(구성 자산⑩)



와라베 취락(구성 자산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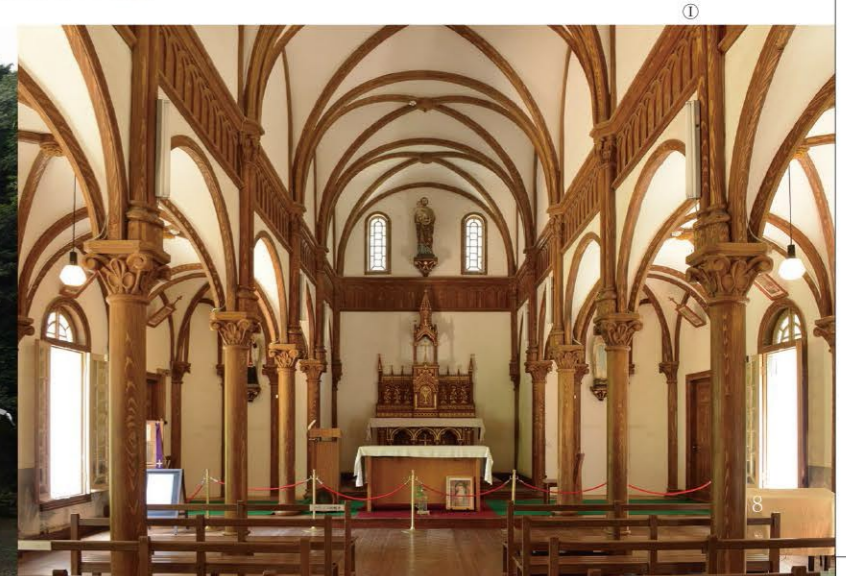


IV | 선교사와의 접촉에 의해 맞이한 전환기와 ‘잠복’의 끝

1854년의 개국 후 머지않아 나가사키에 온 선교사들은 ‘오우라 천주당’을 건설하고, 거류지의 서양인을 위한 선교활동을 벌였다. 1865년 오우라 천주당 선교사와 우라카미 마을의 잠복 기리시탄이 만난 ‘신도 발견’을 계기로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표명하자 다시 탄압이 강화되고 적발 사건이 잇따랐다. 이윽고 탄압에 대한 서양 각국의 강력한 항의가 빚발치자, 1873년 메이지 정부는 그리스도교의 금교령을 철폐하였다. 잠복 기리시탄은 선교사의 지도 하에 들어가

가톨릭으로 복귀하는 사람, 계속해서 금교 시기의 신앙 형태를 유지하는 사람, 신도나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으로 각각 갈라졌다. 가톨릭으로 복귀한 취락에서는 소박한 성당이 새롭게 세워졌지만, 나루시마 섬의 에가미 취락에 세워진 에가미 천주당은 이주지역의 풍토에 맞추어 설계된 전통적인 건축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 ‘잠복’이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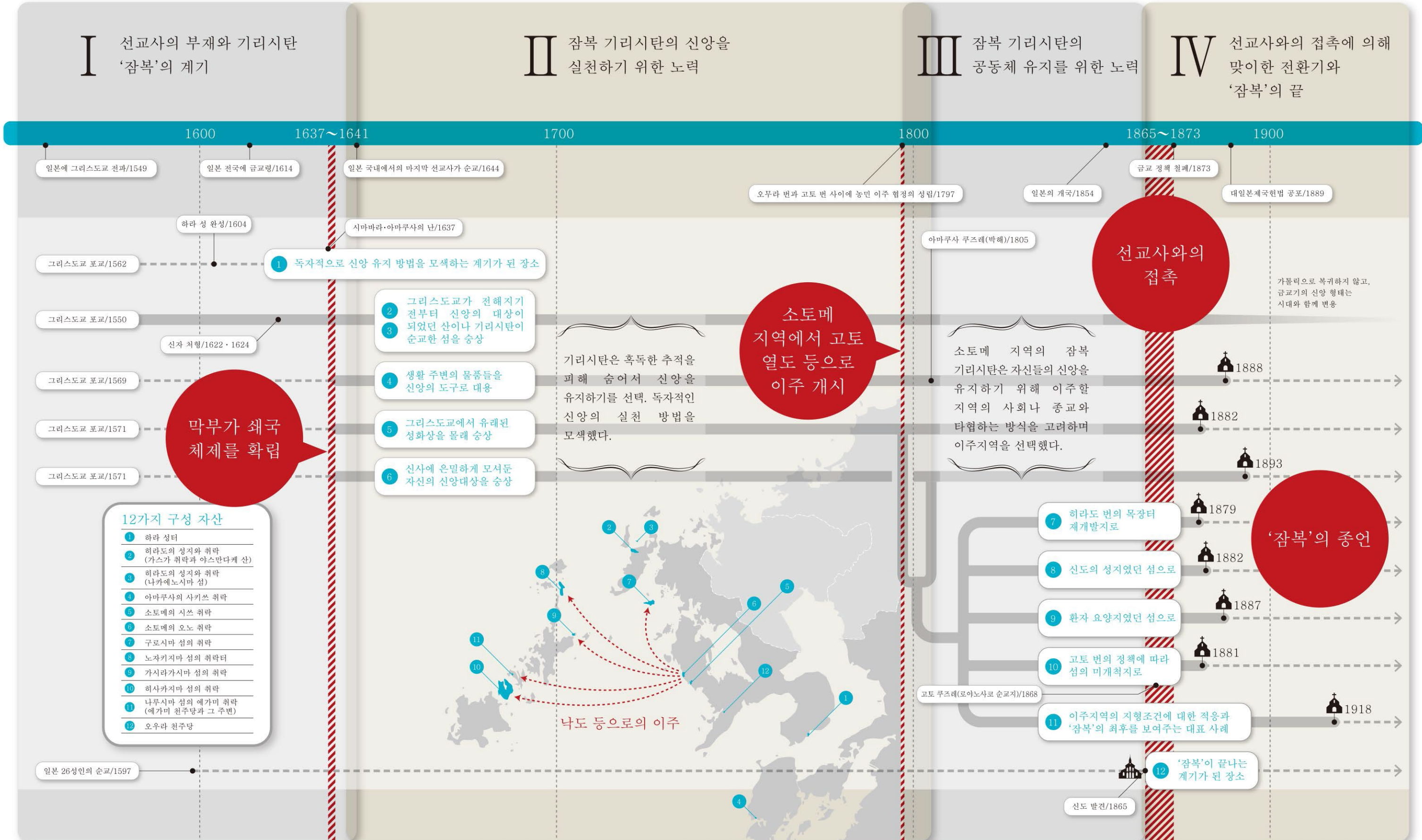
에가미 천주당(구성 자산⑪)



구성 자산의 역사적 의의

Hidden Christian Sites in the Nagasaki Region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 유지와 관련된 전통



12가지 구성 자산 소개

Hidden Christian Sites in the Nagasaki Region

1

하라 성터



당시의 하라 성터 혼마루(<하라 성 포위도>,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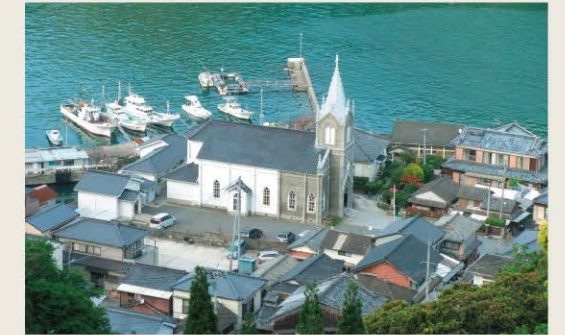
현재의 하라 성터 혼마루

4

아마쿠사의 사키쓰 취락



신앙의 도구로 대용된 다이코쿠텐상(왼쪽)과 에비스상(오른쪽) (개인 소장)



'에후미(성화밧기)'가 시행된 사키쓰 관사터에 서 있는 현재의 사키쓰 성당

2

히라도의 성지와 취락

(가스가 취락과 야스만다케 산)



잠복 기리시탄에게 중요한 장소였던 '야스만다케 산 정상에 있는 석조물군'



야스만다케 산을 숭배한 잠복 기리시탄이 거주했던 '가스가 취락'

5

소토메의 시쓰 취락



은밀하게 모셔 온 <성 미카엘> (사본,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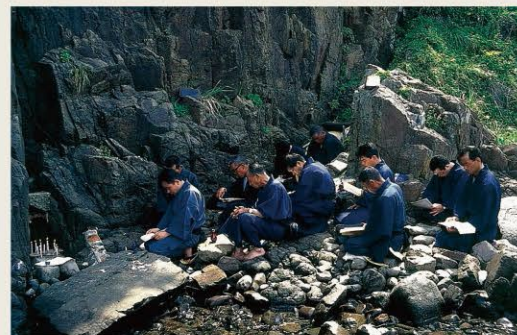


시쓰 취락이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서 있는 '시쓰 성당'

3

히라도의 성지와 취락

(나카에노시마 섬)



잠복 기리시탄이 세례에 사용할 성수를 취수하는 의식 나카에노시마 섬의 '오미즈토리'



금교 초기에 기리시탄이 처형되어, 순교지로서 잠복 기리시탄이 숭상한 '나카에노시마 섬'

6

소토메의 오노 취락



기리시탄의 혼을 모시는 '가도 신사'



오노 취락의 중심부에 세워진 '오노 성당'

12가지 구성 자산 소개

Hidden
Christian Sites
in the Nagasaki
Region

7

구로시마 섬의 취락



금교기에 모든 섬주민이
소속되었던 '고젠지 절'

초대 구로시마 천주당터에 세워진
현재의 구로시마 천주당

10

히사카지마 섬의 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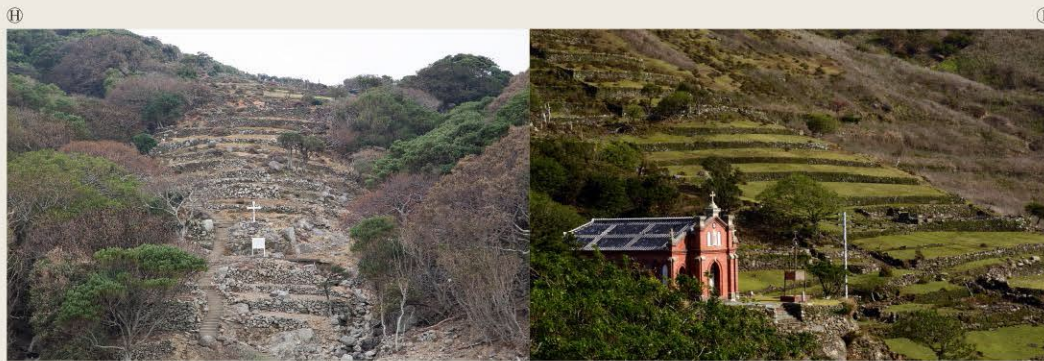
에이리 취락의 마리아 관음
(도자키 천주당 크리스천 자료관
소장)



히사카지마 섬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후, 현재 위치로 옮겨 세워진
'구 고린 성당'

8

노자카지마 섬의 취락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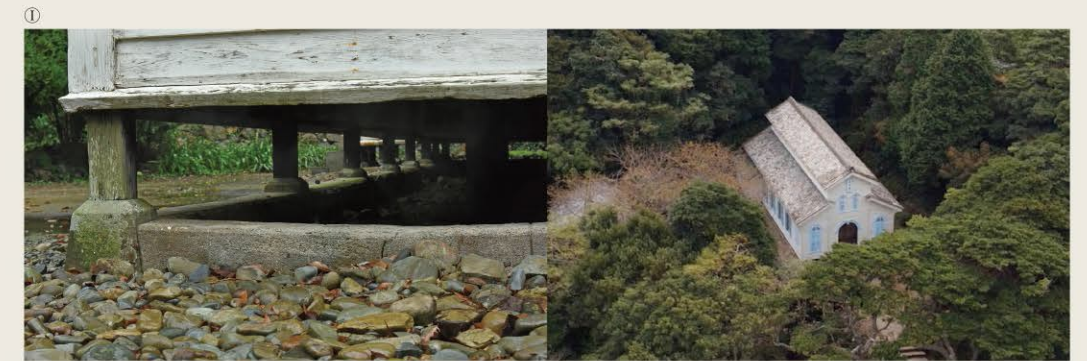
잠복 기리시탄이 노자카지마 섬의
남쪽 끝으로 이주하여 형성한
'후나모리 취락터'

조카타(잠복 크리스천의 지도자)
저택 터 옆에 서 있는 구 노쿠비
성당

11

나루시마 섬의 에가미 취락

(에가미 천주당과 그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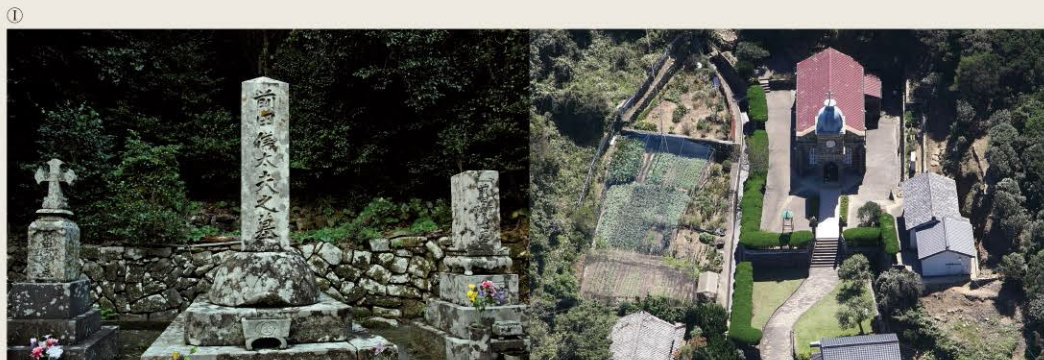


습기에 대처하기 위해 마루를
높이 올린 모습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고 방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세워진 '에가미
천주당'

9

가시라가시마 섬의 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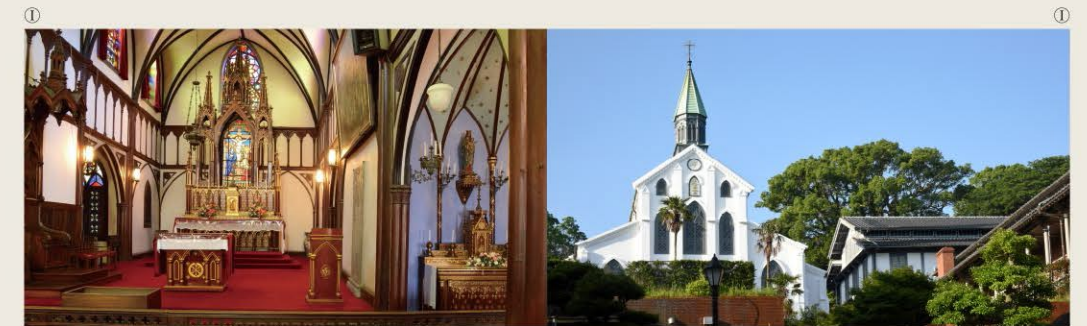


개척 지도자인 마에다 가문의 무덤
*사유지인 관계로 출입은 삼가 주십시오.

'가설 성당'터에 서 있는 현재의
가시라가시마 천주당

12

오우라 천주당



'신도 발견'의 무대가 된 '오우라
천주당의 내부'

금교령 폐지 이후에 증축된
'오우라 천주당'